

 금융위원회	보 도 자 료			
	 금융감독원	보도	2020.8.24.(월) 10:30부터	

책 임 자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 이 석 란(02-2100-2850)	담 당 자	이 종 림 사무관(02-2100-2851) 이 현 기 주무관(02-2100-2856)
	금융위원회 비상금융과장 이 진 수(02-2100-1650)		윤 세 열 사무관(02-2100-1651)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이 동 훈(02-2100-2830)		최 범 석 사무관(02-2100-2836)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박 민 우(02-2100-2950)		송 용 민 사무관(02-2100-2953)
	금융위원회 가계과장 이 수 영(02-2100-2510)		홍 상 준 사무관(02-2100-2514) 김 기 태 사무관(02-2100-2523)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변 제 호(02-2100-2650)		나 혜 영 사무관(02-2100-2652)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고 상 범(02-2100-2660)		양 재 훈 사무관(02-2100-2661)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이 준 수(02-3145-8020)		김 형 원 팀장(02-3145-8040)
	금융투자협회 지표관리사무국 부장 강 성 열(02-2003-9290)		이 동 하 차장(02-2003-9292)

제 목 :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금융업권의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20.8.24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20.8.24.(월) 10:30 ~ 11:30 / 은행회관
- ◆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소비자국장, 자본시장정책관
(유관기관) 금감원 부원장,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민간전문가) 하나금융연구소, 국민은행, KTB투자증권

□ 오늘 회의에서는 시중 자금흐름의 특징,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금융부문 조치 집행상황 및 CD금리 현황 등 최근의 금융부문 리스크 요인을 중점 점검하고, 이에 대한 금융권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아울러, 코로나19 금융부문 지원 현황에 대해서도 점검하였습니다.

2 부위원장 모두발언

☞ <참고1>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금융부문 리스크에 대비하여 면밀하고 착실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저금리 상황에서 고수익 투자처인 주식, 부동산 등 특정 자산으로의 자금 쏠림과 부채 증가는 리스크 요인인 만큼, 금융당국이 관련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 주식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성장하도록 “예방 → 조사 → 처벌”의 쉰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하면서,
 -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통해 혁신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상장요건 개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도 조만간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조치가 철저히 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 특히, 처분·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과 투기지역·투기 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차주에 대한 DSR 적용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단기자금 시장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CD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CD발행의 수요, 공급활성화 방안도 추진하며,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자금이 적시, 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현재 금융시장에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불확실성인 만큼
 - 대고객 접점에 있는 금융회사 역시 방역 태세를 “재무장”하고 실물지원에 앞장서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3 주요 논의내용

1. 시중 자금흐름 동향(하나금융연구소)

- 시중 자금은 수시입출식 예금 등 단기 안전자산과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가계의 잉여자금이 증가하는 가운데 직접투자 선호도 확산되었고, 기업의 선제적 자금조달 확보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 초저금리로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위험선호 현상도 강화되고 있는 만큼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환경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금융부문 모니터링(금융감독원)

- '20.9월부터 처분·전입조건부 대출* 등의 이행만료일이 도래하므로 약정이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점검을 지속하겠습니다.
 - * (1주택자) 규제지역에서 2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 가능
(무주택자)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2년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 가능
 - 앞으로 금융회사가 약정이행 확인 및 未이행시 제재조치 등 (대출회수 등)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최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전세대출과 관련하여, 12.16, 6.17 대책 등 그간의 전세대출 요건 강화 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 *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취급제한 등

3. CD금리 합리화 및 활성화 방안(※ 세부내용은 < 별첨 > 참조)

- (CD금리 합리화) CD산출 방식을 호가(呼價) → 실거래에 기반하여 단계적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1단계) 실거래 → (2단계) 인근 만기의 발행·유통 금리활용 계산 → (3단계) 전문가 판단

- (CD 활성화) CD 지표물(금리산정 기초 CD) 공급확대^①, 수요확대^② 및 중개활성화^③를 추진하겠습니다.

① 예대율상 예수금(1%) 인정 CD: (현행) 지표물기타물 100% → (변경) 지표물 150% 기타물 50%

② CD주요 인수처인 MMF의 동일인한도 자산 산정시 CD지표물은 5% 초과분만 산입

③ CD수익률 제시 증권사의 콜시장 참여 허용

4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적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주요 금융지원 실적

-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3.9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0.6조원이 집행되었습니다.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20.1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1.3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시중은행 금융 지원 실적

- 8.19일까지 78.6만건, 88.2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 유형별로는 신규대출이 60.1만건/55.2조원 실행되었고, 만기연장이 18.5만건/33.0조원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korea.kr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	---	--	-----------------------------	---	---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우리 금융시장은 코로나19에도 성공적인 방역조치와 적극적인 금융시장 안정대책 등을 통해 그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의 경우, 주가가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유지하고 있고,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코스피: ('19말)2,198 → (3.19, 低)1,458 → (7월말)2,249 → (8.21)**2,305** (저점比 +58.1%)

** 주요국 저점대비 주가 상승률(%): (韓) **58.1**, (美) 49.2, (中) 27.1, (日) 38.5, (유럽) 37.2

회사채 및 단기자금 시장의 경우에도 아직 비우량 기업의 애로는 일부 있지만 발행여건이 연초대비 상당부분 개선되었고, 스프레드*도 축소중입니다.

* 스프레드: CP(bp, A1, 통안91비): (2월말) 44.3 → (3월말)129.1 → (7월말) 89 → (8.21) **80.1**

회사채(bp, AA-, 국고3년비): (2월말) 60.3 → (6월말) 140.8 → (8.21) **135.0**

하지만,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우리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주부터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2단계로 격상되었고, 사회, 경제의 많은 부분들이 다시 위축되는 등 실물경제와 금융시장도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금융부문에서는 위기의 장기화 등 리스크에 대비하여 면밀하고 착실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1. 시중 자금 흐름 특징]

최근 저금리 상황에서
고수익 투자처 확보를 위해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자금이 유입되고
관련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정 자산으로의 자금 쏠림과 부채 증가는
잠재적인 시장의 리스크 요인인 만큼
금융당국도 관련 시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상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각종 불법행위 우려에 대응하여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왔으며,

* 코로나테마주 모니터링 강화(20.2월) 및 신중 투자 당부(20.4월), 주식 리딩방
소비자경보 발령(20.6월),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계획(20.7월) 등

앞으로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면서
“예방→조사→처벌”의 순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통해
우량·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우수한 혁신기업이 원활히 상장될 수 있도록
상장요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기업에 대한 장기투자 유도를 위해
공모펀드의 경쟁력 제고방안도 조만간 마련할 예정입니다.

[2-2.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조치 이행상황 점검]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달성하고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부문 조치를 발표해 왔습니다.

* '17.8.2대책, '18.9.13대책, '19.12.16대책, '20.6.17대책, '20.7.10대책

정부정책은 현장에서 '철저한 집행'으로 완성되는 만큼, 각 금융회사들과 함께 규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규제회피나 우회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9월부터는 과거 '18년 9월*에 도입한 처분 및 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만료일이 도래합니다.

* '18.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 (1주택자) 규제지역에서 2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 가능
(무주택자)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2년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 가능

기존에 발표한대로 각 금융기관은 약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차주가 이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대출회수 및 약정 위반여부 등록*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입니다.

* 약정 위반여부 등록시 3년간 주택관련대출 금지

특히, '20년 6.17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되고 처분·전입요건 기한이 단축**된 만큼, 금융회사가 약정 이행 관련 업무프로세스를 정비하고 규제가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17개(인천 연수, 대전 유성 등), 조정대상지역 25개(경기 양주 등) 신규 지정

** 투기·투기과열지구 1년, 조정대상지역 2년 → 쏠 규제지역

또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DSR이 차주단위로 문제없이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2-3. CD금리 합리화]

이와 함께 금융시장에서 리스크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단기자금 시장에서도
금융리스크가 면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환매조건부 매매거래(RP)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제도개선을 추진*한데 이어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현금성자산보유 의무, 최소증거금률 적용

CD 금리의 경우 은행대출, 이자율스왑(IRS) 등의 준거금리로
연간 수천조원* 규모로 활용되고 있지만,
기준금리로서의 신뢰성과 합리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 (19년) IRS 6,300조원의 상당부분이 CD를 준거금리로 활용, CD연동 대출은 180조원

이에 따라 앞으로 CD금리 산정 방식을 현재의 호가(呼價) 방식에서
실거래에 기반하여 산출될 수 있도록 합리화하고,
CD금리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요, 공급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 금융부문 이행지원 실적]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코로나19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의 경우
8월 19일까지 총 6,62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자동차 부품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약 1.3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대출(3,530억원), 보증(963억원), 만기연장(8,434억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과 수출기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既 마련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이 적시, 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마무리 말씀]

현재 금융시장에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코로나19 영향의 불확실성입니다.

정부가 시중자금의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주식시장이 신뢰받는 시장으로 역할하도록 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은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대고객 접점에 있는 만큼
방역 태세를 “재무장”해주시고,
실물지원에도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직원의 재택, 분산근무를 적극 이행하여주시고,
금융회사 지점, 콜센터 등에서의
소독 등 방역관리도 철저하게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기업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 지원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참고2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적 (2.7.~8.19.)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주요 금융지원 실적

① 소상공인 대상 긴급 경영자금 신규 공급	목표금액	지원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2.7일~) * 기은 초저금리, 시중은행 이차보전,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16.4조	13.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5.25일~) * 시중은행 위탁보증 대출 	10.0조	0.60조 (5,983억원)

②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확대	목표금액	지원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지원(3.16일~) * 수은·산은·기은 금리·한도 우대 대출 	21.2조	14.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지원(4.1일~) * 수은·신보 수출기업 우대 보증 	7.9조	5.2조

③ 회사채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지원	목표금액	지원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권사 유동성 지원(3.24일~) * 한은 RP 매수, 증권금융 대출 	5.0조	6.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채·CP·전단채 차환·인수 지원(3.30일~) * 산은 회사채 신속인수 및 차환지원, 산·기은 CP·전단채 차환지원 	6.1조	2.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신용 회사채·CP매입 지원(7.24일~) 	20.0조	0.7조 (6,62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 피해 P-CBO(4.1일~) 	11.7조	1.7조

□ 시중은행 지원실적 집계

신규대출*		만기연장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0.1만건	35.2조원	18.5만건	53.0조원	78.6만건	88.2조원

* 신규대출 실적에는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 ①, ② 실적 포함

※ 금융권 전체 지원실적(정책금융기관, 제2금융권 포함)은 매주 화요일에 집계됨에 따라 시중은행 금융지원 실적만 집계